



한국어나운서클럽회보

2011년
6월 15일
제 2 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6 포스코더샵 1304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어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본격 활동 나서

클럽 회원 적극 참여로 현장교육, 간담회, 소책자발간 사업 박차



5월 30일, 초당대 대강당에서 있었던 이규향의 특강

우리말을 순화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출범한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이하 바른말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어나운서클럽 회원 이규향 강사가 지난 4월 27일, 충북 제천 세명대 시청각교실에서 실시한 '한국어는 발음과 표기가 다른 언어이다' 특강을 시작으로, 5월 25일 전남 영광 선학대, 26일 서울 월계동 광운대, 30일 전남 무안 초당대, 6월 15일 대전 한남대 강단에 섰다.

또한 2009년 3월 개설된 매주 수요일 정오, 고양 중산동 주민 대상 '말 잘하기 교실'은 6월 8일 10기 강좌부터 황인우 강사가 올 6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서울 역삼동 주민 대상 강좌는 이팔용 강사가 담당한다.

한국어나운서클럽 전영우 고문의 제안에서 비롯된 바른말협의회는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인 한국언론인협회 사무총장 정운중 회장과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사회교육방송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팔용 사무처장이 주축이 되어 2008년 11월 발족했다. 2010년 6월에 문체부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되었고, 올봄 정부 지원금을 받아 현장 교육과 간담회 개최, 모범언어 소책자 발간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팔용 사무처장(문의: 011-247-6568)은 장소와 수강인원을 확보해 바른말협의회에 신청하면, 아나운서클럽 회원을 비롯한 방송인, 언론인, 교수가 현지에 파견되어 무료 강좌를 제공한다고 하며 바른말협의회가 성공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향- 4월부터 대학순례 특별강좌

이팔용- 6월 역삼동 '말 잘하기 교실' 운영

황인우- 6월 고양 중산동에서 주민대상 강의

담회 개최, 모범

언어 소책자 발간

등의 사업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이팔용 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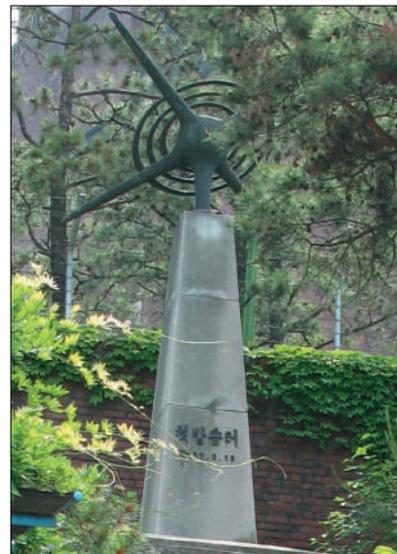
호출부호 JODK 발사한 '첫 방송터' 기념행사

방우회 주관, 경성방송국 유허비 있는 서울 덕수초등학교서 거행

'첫 방송터' 기념행사가 원로 방송인들의 모임인 (사)방우회 주최로 4월 23일 오전 11시 경성방송국 자리인 서울시 중구 정동 1번지 덕수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영섭 방우회장을 비롯해 한국어나운서클럽 황우겸, 전영우, 박종세, 강영숙 고문과 김규홍, 차인태 부회장, 정경래, 그리고 조옥래 문공회장, 이치순, 박경환, 김명희, 오승룡, 노익중, 조남민 등 원로 방송인과 KBS 이동식 정책기획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영섭 방우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날 다양한 방송문화를 꽃피운 것은 과거 열악한 환경과 통제 속에서도 선배들이 열정과 땀으로 일군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첫 방송터의 의미를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한국어나운서클럽 차인태 부회장은 "우리 클럽 최만린 고문이 조각한 유



아나운서 출신 조각가인 최만린 고문이 회원들의 성금으로 1987년 제작한 첫 방송터 유허비

호출부호로 첫 전파를 발사한 경성방송국 건물이 6·25로 인해 잿더미가 되고 방송 터는 인근에 흡수되어 흔적

한국 방송문화의 토대를 다진 선배들의 열 기려

허비 앞에서 올곧은 선배들의 정신을 기리니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우회는 1927년 2월 16일 JODK

을 찾을 길 없게 되자, 1987년 그 자리에 회원들의 성금으로 '유허비'를 세우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아나운서연합회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6월에는 내년 런던올림픽 대비 스포츠중계방송 공부 예정

5월 '스마트 미디어시대 그리고 아나운서' 주제로 교육 세미나

한국어나운서연합회는 5월 2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의 후원으로 현역 아나운서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 세미나를 마련했다.

'스마트 미디어시대 그리고 아나운

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세미나는 50여 명의 아나운서들이 참석해 아나운서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손범규 연합회장은 오늘 첫 모임을 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는 아

나운서 공부'를 내년부터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확대·개편하고 교양·예능·스포츠 등 4, 5개 과정을 2개월 단위로 주 1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교육 세미나는 내년 런던올림픽 대비를 위한 스포츠중계방송을 주제로 6월 24일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상파 방송3사 스포츠 중계 담당자를 초빙해 열릴 예정이다.



내년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는 아나운서 공부를 확대·개편해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REFRESHINGLY UNIQUE
Very cold but without ice

공식수입원 (주)CUC 02.755.5032

정담 나누며 원로들의 격려와 충고 들어

다음 모임은 8월 31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빈에서



김인숙, 윤영중, 문복순, 김윤희 등 KBS 출신 여성 원로와 박영웅, 홍승택, 정연호, 김상준, 안윤숙, 채영신, 권혁화, 최선규 등이 참석했다.

한국어나운서클럽 5월 정례 모임이 18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의 중식당 열빈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임택근, 채영신, 이혜옥, 박민정, 권혁화, 김상준, 이계진, 김인숙, 윤영중, 김윤희, 문복순, 정연호, 김동건, 황인우, 전웅덕, 박종세, 최계환, 안윤숙, 원종배, 전영우, 김규홍, 홍승택, 정경래, 박영웅, 강영은, 전찬희, 이형균, 김완태, 유수민, 차인태, 최선규, 황우겸(입장순, 호칭 생략) 회원 등 32명이 참석했다.

김동건 회장은 “임택근, 최계환 고문님의 한층 건강하신 모습을 뵈 수 있어 고맙다.”라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규홍 부회장은 지난 3월 창간한 클럽회보

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보고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미국에 거주하는 원로 위진록 선배가 클럽회보 창간호를 받아본 후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대독해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최근 MBC방송 아카데미 본부장으로 파견된 강영은 이사가 근황을, MBC 김완태 아나운서협회장이 아나운서실의 동정을 전했다.

전웅덕 고문은 건배를 제의하며, “MBC ‘신입사원’ 프로그램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논리적으로 무장한 후배가 많아지는 것 같아 흐뭇하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인사에서 황우겸 고문은 우리 모임이 선배가 한데 어울려 남산처럼 늘 푸르기를 기원했고, 고대 그리스 수사학 서적을 번역 중이라는 전영우 고문은 핵심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기도 했다. 봄철 개편 시기라 현역의 참여는 저조했지만, 원로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다음 모임은 오는 8월 31일(수), 오후 6시 30분, 중식당 열빈(여의도 홍우빌딩 3층, 02-783-3838)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로와 회원들의 동정과 근황 전달
MBC ‘신입사원’ 프로그램 보니 감회 새롭다
전영우 고문, 그리스 수사학 서적 번역중

칼럼

6.25 제1보를 전한 위진록 선배

— 위기대처능력은 수많은 방송경험에서 나온다

올 6월은 ‘6.25 60년 행사’가 줄을 이었던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싶던 차 미국에 사시는 위진록 선배님이 서울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전용사 방한행사’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신간 출간을 계기로 이 6월에 다시 고국 땅을 밟으신다는 것이다. 선배님은 6.25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6.25 발발 뉴스를 처음 전한 분이 아니시던가! 선배님의 곳곳한 모습을 뵈고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다섯 시경, 숙직하다가 수위가 깨우는 바람에 일어난 선배는 국방부에서 온 대위로부터 ‘북한의 남침 소식과 국군이 견제하니 동요하지 마라.’라는 내용을 지체 없이 방송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용이 중대한 지라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한 선배는 당시 방송국장서리였던 민재호 아나운서에게 보고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 후 아침 7시경 제1보를 방송한다.

그 후 임시 뉴스를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그 비극을 헤아리기에겐 너무나 꿈 많고 단순한 스물세 살 청년은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러 동대



김동건 (사)한국어나운서클럽 회장

문 서울운동장으로 향한다. 관람석은 가득 찼고 관중들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으나, 후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사정이 달라졌다. ‘시합 중단과 즉시 퇴장’ 방송이 나오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선배는 비로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위진록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20대의 나라면 어떠했을까’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방송할 때마다 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하리라 마음먹지만, 그것은 수많은 방송을 경험하며 절로 터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마이크 앞에서 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며, 신문·방송인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6월이다.

6.25 발발 긴급 뉴스
국방부 대위가 새벽 5시 방송 요청했으나
방송국장 등과 협의 후 아침 7시 첫 방송

특포 제23주기 장기범 아나운서 추모식

아직도 생생한 선배님의 목소리와 그 정신 저희가 잇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아침, 인천(仁泉) 장기범 아나운서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황인우 편집장과 함께 KBS를 찾았다. 본관 앞에는 <장기범 평전>을 쓴 KBS 아나운서 출신 김성호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 원장이 대학 버스를 준비해 놓고 ‘추모 만남의 날’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 한 시간여 이동하는 동안, 김규홍 부회장이 참석자를 소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덕분에 최계환, 배덕환, 이규향, 이팔웅, 이근배, 이장우, 김승한, 최선, 최평웅, 정경래, 정희준, 김규홍, 홍승택, 박영웅, 정도영, 이종태, 이계진, 황량, 고광수 등 아나운서 선배들은 물론 선생과 경성공고 선

후배 사이라는 박경환 전 KBS 이사와 김영우 전 KBS PD, 그리고 이윤재 전 KBS 심의위원, 안평선 전 KBS PD 등과 반가운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문수산성 근처 묘소에 도착하니 3남 제용 씨와 친지, 강영숙 고문, 이세진 회원, 김창희 전 KBS 기술본부장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병주 전 KBS 라디오본부장이 합류하고, KBS 아나운서실 김성수 실장, 박경희, 유애리, 김관동, 김동우, 박현우, 한상권 등 현역들도 자리한 가운데 제23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예년과 같이 이세진 회원이 집전한 이날 행사는 정경래 회원의 장기범 선생 약력 소개와 비문 낭독으로 시

작되었다. 장기범 선생은 1927년 5월 5일, 인천 무의도에서 출생했다. 1948년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여 방송계에 입문, 아나운서실장을 거쳤고 1959년 ‘미국의 소리(VOA)’에 파견되어 2년간 근무했다. 춘천, 부산, 대구방송국장, 라디오국장, 방송연수원장 등을 지내고 1982년 정년퇴임, 그리고 1988년 3월 18일 향년 62 세로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셨다.

추모식에서 40명의 참석자들은 하나

올렸다. 이규향 회원은 “한국어를 아름답게 연주한 대표적인 아나운서로서 ‘한국 방송언어학교’의 교장 같은 분”이라고 언급했다. 2002년, 선생의 뜻을 기려 ‘장기범상’을 제정한 이계진 부회장은 인천 선생의 정신은 길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의 소풍처럼 훈훈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추모식을 마치고 돌아오며, 나는 ‘선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낭만과 인간미로 점철된 장기범 아나운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곳곳한 방송인의 표상 한국어를 아름답게 연주한 대표적인 아나운서

같이 ‘방송이 곧 사람’이라는 신념을 갖고, 어떤 압력에도 방송 열정을 꺾지 않은 선생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을 토로했다. 장기범 선생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불응해 여러 번 지방으로 좌천당하셨던,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곳곳한 성품이셨던 분, 자신의 봉급을 어려운 후배에게 아낌없이 베풀셨던 분이셨다고.

특히 최계환 고문은 ‘학처럼 곳곳하게 사신 분’이라고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강영숙 고문은 매서운 호통과 따뜻한 격려로 후배들을 이끌어주던 선생을 떠

서의 삶은 영원한 방송인의 표상으로 많은 이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테니 말이다. 그날 참석자들의 추모의 정은 별처럼 쌓였지만, 후일을 기약하며 여기서 줄인다.



이혜옥 편집위원
1969년 KBS 입사
1980년까지 프리랜서로 활동
1978~2005년 이혜옥부티크 경영
2007년 아파트신문 대표

초대석 제3대 회장 임택근 고문

아끼던 만년필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 뜻은 아나운서 역사의 바통 터치 아닐까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에서 방송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에 대해 얘기했다

오월의 화창한 오후,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에서 임택근 선배를 만났다. 몇 년 전 버스에서 내리며 목이 빠졌던 게 화근이 되어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 탓에 아직도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시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좋아진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대한민국 노래자랑 MC 시조로 폭발적 인기
2002월드컵 당시 72세 최고령 스포츠캐스터

필자는 초기 아나운서를 연구하며 임택근 선배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다. '방송 현장의 이모저모를 증언하기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지도교수의 권유 덕분이다. 1951년 연희대학교 1학년생으로 피란지 부산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입문해 1980년 문화방송 사장직무대행(전무)으로 공식 전파인생을 마무리한 빛나는 방송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한국아나운서클럽'의 탄생, 기억에 남는 방송, 후배들에 대한 당부'만 다루려 한다.

1950년대 후반, 중앙방송국(KBS) 아나운서 예닐곱 명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동심회(同心會)>. "지금 극동빌딩 옆 골목 작은 식당 이름

을 따서 지었는데, 나중에 장기범 선배가 <청담회(靑藍會)>로 하자고 했어요. '청출어람(靑出於藍)처럼 늘 푸르디푸른 방송을 하자는 뜻이었지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황우겸 선배 주도로 모임을 재정비해 '아나운서동우회'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 출범한 것이 1991년 <한국아나운서동우회>이다. 여의도에서 열린 창립식에서 강찬선 선배를 초대 회장으로 모셨고, 2대 황우겸 회장 임기 말년에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했으며, 이어 임택근 선배가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때 문제안 선배도 오시고 오재경 전 문공부 장관을 비롯한 외부 인사까지 150 명쯤 왔을 거예요. 재임 중 클럽기

국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했으며, 이어 임택근 선배가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때 문제안 선배도 오시고 오재경 전 문공부 장관을 비롯한 외부 인사까지 150 명쯤 왔을 거예요. 재임 중 클럽기(旗)와 경조기도 만들었지요. 후임 회장도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특히 최근엔 사단법인으로 키워내고 클럽회보도 창간하고....." 클럽의 역사를 회고하며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는다.

'전국노래자랑'과 '위대한 탄생'을 합친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50년대 큰 인기를 모았던 <노래자랑>으로 화제를 돌려보았다. "내가 대한민국 노래자랑 MC의 시조인 셈이죠. 한 1, 2년 하다가 <스무고개>를 내가 하고, 장기범 선배가 <노래자랑>을 했지요. '조선호텔' 별관 자리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했는데, 사람이 많이 와 '대한공론사' 강당, '신세계백화점' 5층으로 옮겨갔어요. 밀려드는 팬들로 단추도 꽤나 뜯겨나갔지요."

방송생활 30년, 그 중 하나만 택한다면 임 선배는 어떤 걸 고를까? "이를 걸고 했던 <임택근 모닝 쇼>도 생각하지만, 중계방송을 떠올리면 지금도 피가 끓는 듯해요. 5·16 직후 '육사생도 지지 시위'를 중계해 아나운서 최초로 '옥관문화훈장'도 받았고, '공군 에어쇼'를 중계하고 윤길구 선배로부터 '타고난 방송인'이란 칭찬 들은 기억도 생생해요. 2002년 월드컵 때는 MBC 라디오 중계를 맡아 '최고령(당시 72세) 중계 아나운서'로 기록되었지요."

요즘 아나운서, 방송을 보는 임택근 선배의 생각이 궁금했다. "정도(正道)를 걷는 기본으로 개성 빛나는 재기발랄함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반(半)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후배 아나운서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뭘까?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새까만 후배인 강제형 씨는 '선배님'이라 부르다며 웃곤 했다. '아나운서 선배 관계가 끈끈한 정이 있다는 것을 남들은 잘 모르리라. 하지만 우리, 아나운서들은 안다. 새내기에게 할아버지뻘인 원로 아나운서도 그냥 선배일 뿐이다. 하늘같



1958년 2월 16일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KNA여행기가 남북, 남북적십자회담 결과 34명 중 26명을 3월 6일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인사들의 귀국현장 보도는 기술적인 문제로 생방송되지 못했으나 판문점 최초의 실험중계방송으로 방송사에 기록되었다. 3월 4일 현장답사 차 판문점에 가서 찍은 사진. 왼쪽부터 북한군, 임택근, 문시형 PD

자료 모아 아나운서박물관 건립, 기록이 있어야 뿌리를 알 수 있어
골목 작은 식당 이름 딴 '동심회'서 96년 한국아나운서클럽으로 성장

"자료 보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많던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언젠가는 '아나운서 박물관(기념관)'을 세워야지요. 뿌리가 있어야 하나니까. 기록이 있어야 뿌리를 알 수 있잖아요."

<임택근 연구>를 저술한 김민환 전 고려대 교수는 임택근 아나운서를 깎듯

은 원로를 '선배'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뿌리'를 바탕으로 한 자랑스러운 '아나운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아끼던 만년필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한 임택근 선배. 그 말에서 '뿌리'를 생각하는 선배의 마음이 느껴졌다.

강재형 MBC 편집위원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란 소리만 들어도 짝사랑 소녀 만난 듯 가슴 설레

미주 LA에서



이승상
• 1964년 KBS 입사
• 1970~1974년 MBC LA지사로 파견 근무
• 1985~2008년 KBS-LA 뉴스 앵커
• 1989년 북한단독방송 취재기 KBS-1TV에서 방송

"어! 아나운서 신문이 나오네!"

지난 3월 뜻밖에도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호를 받아보고 얼마나 반갑고 행복했는지, 고국에 계신 클럽 회원께서는 짐작이나 하실는지. 오랫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선배님의 소식을 듣고 흥

창간 회보 받고 얼마나 반갑고 행복했는지...
우리들 자긍심 키워주고 한데 묶는 큰 역할 할 것

륭한 글도 읽으면서 내가 아나운서였다가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창간호를 접한 것은 3월 하순 미주방송인협회 LA지역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아나운서, PD, 기술, 탤런트, 성우 등 각 직종별로 4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는데, 김홍수 회장과 홍우창 전 회장이 마

침 한국에서 보내온 것이라며 회보를 전해 주었다. 아나운서 출신 회원들에게 한 부씩 배포하며, 워싱턴, 뉴욕, 시애틀에도 보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날 이 광경을 본 타 직종의 참석자들은 "역시 아나운서들은 멋지다!"라며 축하의 박수까지 보내주었다. 모두 "창간호를 내면서 이곳까지 잊지 않고 챙겨 보내주다니 참으로 고맙다."며, 고국의 아나운서와 방송 애기로 꽃을 피웠다. 다시 한 번 <한국아나운서클럽>을 이같이 발전시킨 김동건 회장님과 편집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미국에 이민 온 지 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나운서'란 활자를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 마치 소년이가 짝사랑하는 소녀를 만나듯 가슴이 설렌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고국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들의 마음은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

틀림없다.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이곳 방송 매체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방송인들이 잘못된 언어를 쏟아내고 있어 많은 걱정을 하게 한다. 이민 온 아나운서 선배들이 가끔 방송인 모임 등에 참석해 이곳 방송의 질적 개선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얘기해보지만, 아직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미주에서 살고 있는 전직 아나운서들에게 자긍심



(사)미주방송인협회: 1977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나운서를 비롯한 16명의 방송인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 현재 회원 수는 450명이다. 특히 2002년 협회지 "미주방송"을 창간해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주지역 전·현직 방송인의 상호친목과 유대강화, 우리말방송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을 심어주고 이들을 한데 묶어 '우리말 지킴이'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아나운서 신문이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창간호 발간을 축하하며, 더욱 발전하기를 미주방송인협회 회원 모두가 기원한다.

바른말 고운말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일본식 한자어 순화

- × 견습 → 수습(修習)
- × 고참 → 선임(先任)
- × 구좌 → 계좌(計座)
- × 대절 → 전세(專賃)
- × 만개 → 만발(滿發)
- × 시말서 → 경위서(經緯書)
- × 융통 → 변통(變通)
- × 입장 → 처지(處地)
- × 출산 → 해산(解産)
- × 취조 → 문초(問招)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CBS 내부 진행자 비율 높고 제작 겸해 전문성강화



흐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CBS는 타방송사보다 내부 진행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앞서 거론한 두 아나운서 외에도 표준FM의 <좋은 아침 최정원입니다>, <김은영의 음악 풍경>, <김필원의 싱싱싱>을 비롯해 음악FM의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12시에 만납시다 김윤

서울CBS(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에서 일하는 18명(남6, 여12)의 아나운서가 표준, 음악FM 두 개 채널과 TV 한 개 채널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30분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25개의 5분 뉴스 진행은 물론 각자 한두 개의 프로그램

선후배가 함께 멘토링하며 서로를 성장 격려

을 진행한다. 특히 2명의 휴직자를 제외하고 16명 중 5명의 아나운서가 1인 제작·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공고히 해나가는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7080음악의 대명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유명재의 <가요 속으로>와 영화마니아에서 이제는 영화평론가를 능가하는 전문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10년 넘게 CBS 음악FM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아나운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주입이다), <송정훈의 CCM캠프> 등 주요 프로그램에 아나운서가 기용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BS 아나운서들은 선후배가 함께 하는 멘토링을 통해 서로 성장을 격려하고 있으며, 관

심분야별 소모임을 조직해

공부하고 방송언어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를 하며 전문분야를 심화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 상·하반기 '무사고상'을 시상하고 연말에는 칭찬하고 싶은 선후배 중 1인을 선정해 'CBS 아나운서人常'을 수여하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점도 다른 부서의 부러움을 사는 분위기 좋은 아나운서부의 장점일 것이다. 전국 13개 네트워크에서 근무하는 30명의 아나운서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장주희 부장)



'우리말 고운말' 방송 새터민교육 바른말 전파



임의 '올해의 우리말 지킴이'에 뽑혔고, 2007년 '장기범상'을 받았다. '노견(路肩)'이 '갓길'로, '인터체인지(I.C.)'가 '나들목'으로 쓰이게 된 것도 방송 중 순화된 우리말을 쓰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지난 5월부터는 새터민에게 우리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tbs 아나운서들에게는 기본 교육과정 외에 엄격한 교육 프

로그램이 또 있다. 바로 도로지도 통달하기. 매 순간 변하는 교통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그 원인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뉴스보다 교통정보를 진행하는 것이 더 떨리고, 교육도 오래 받는다.

도로지도 익히기, 원인까지 알아야 하는 교통정보 진행 쉽지 않아

현재 서울tbs(서울시 중구 예장동 3-8) 아나운서부에는 10명이 근무한다. '걸어 다니는 스포츠신문' 김병훈 부장, 보조개의 웃음 바이러스 나선홍 팀장, 여왕 같은 외모와 에너지 정연주, 은근한 매력 최강 존재감 송정애, '친절한 원찬 씨' 황원찬, 엉뚱한(?) 말머느리감 정은길, 건강

tbs는

1990년 6월 11일 라

디오 채널 개국 후 올해로 21년이 되었다. 그동안 TV와 DMB, 영어FM 방송까지 영역을 넓혀 유일한 서울시 산하 수도권 대표방송으로 자리 잡았다. 채널 수만큼 아나운서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얼마 전 아나운서부에선 객원 아나운서 2명을 선발했고, 곧 신입 아나운서를 뽑을 예정이다.

tbs 아나운서 13명은 살아있는 방송, 감동을 주는 방송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한다. (김두희 아나운서)



우리들만의 색깔 내기 고심



가 넘친다.

OBS는 생방송, 생방송의 중심 아나운서 - 새벽 6시부터 유형서 아나운서가 <생방송 OBS> 두 시간 단독 진행, 저녁 7시 45분부터 밤 10시까지는 <OBS 뉴스 M> 이자연 앵커를 비롯한 OBS 아나운서들이 <오늘의 월드뉴스>, <통쾌하다 스포츠> 등 135분간 생방송을 이어간다. 유독 생방송이 많기에 각종 돌발상황 지침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메이저리거 추신수와 OBS - OBS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 노릇을 한 미국 메이저리거 중계. OBS는 올해도 클리블랜드 추신수 선수의 활약을 독점 중계하고 있다. 캐스터 홍원기, 김준우, 두 아나운서가 매일 3시간 이 넘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 내려갈 때 아나운서팀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진다.

'변화'를 화두로 - 3년간 전원이 매일 생방송하며 OBS 아나운서만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그려보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합편성채널의 출현과 미디어 빅뱅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우리들의 색깔과 경쟁력은 어떠한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유영선 아나운서)

젊은 방송, 젊은 아나운서 - 경인지역 지상파 OBS(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2-7)가 태어난 지 석 돌이 지났다. 방송사에 걸맞은 젊은 감각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관건. 방송사의 브랜드, 아나운서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다. 이상희 팀장과 유형서, 홍원기, 김준우, 김준호, 유영선, 유진영, 최지애, 강미정, 이자연, 김원경, 김용재, 12명(남6, 여6)의 고민도 커져 갔다.

아나운서 정체성 확립과 우리만의 색깔 내기 - '바른 우리말을 지키며 행복과 진실을 전하는 아나운서'란 전제로 한국어 구사능력 높이기에 나섰다. 신입 아나운서 연수에서도 절반의 시간을 할애했다. 사내 게시물을 만들고, '정말로'를 주도적으로 제작하며 바른말을 전파한다. 또 수시로 합평회를 열고 타사 방송을 모니터링한다. 토론은 늘 활기



우리는 아나듀오! - 아나운서 프로듀서 오퍼레이터



있고 '아나듀오'(아나운서, 프로듀서, 오퍼레이터의 합성어)라 칭하는 1인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송하고 있다.

2011년 5월 현재 극동방송의 편성부서 인원은 교계 보도기자를 포함해서 총 50명, 서울 중앙사에 10명(남5, 여5)의 아나운서가 근무한다.

극동방송(FEBC)은 1945년 말에 시작된 이래 현재 122개의 방송언어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4대 기독교 방송망 가운데 하나로 성장해 왔다. 극동방송인들은 세계 종교 방송인들의 연례 모임인 종교방송인대회(NRB)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극동방송(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은 1956년 12월 23일, 인천의 해안가에서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한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고자 첫 전파를 발사하며 시작되었다. 서울을 비롯해 제주, 대전, 창원, 목포, 영동, 포항, 울산, 부산, 대구에 방송본부를 두고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 5개 국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송출한다.

극동방송은 1990년대 초기에 운행 자동화와 송신소 무인 운영을 실시하여 방송사 운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찬양이 있는 곳에' 2부 진행자인 2010 아나운서대상 수상자 박광현 편성부장을 비롯해 김성운 차장(퇴근길을 벗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명사 대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인성 차장(신앙서적 소개 '책마을 산책'), 강수미(주부대상 프로그램 '사랑의 뜰안'), 윤재희(통일을 모색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김정호(출근길을 벗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박수훈(좋은 찬양을 소개하는 '찬양스케치'), 남현용('찬양이 있는 곳에' 1부), 박애리(새터민이 진행하는 신규 대북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제작), 양현민(청소년 대상 '클릭! 비전!')이 '오직 복음만!'이라는 사명을 불태우고 있다. (김성운 아나운서 협회장)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PBC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역량 키울 수 있어



가톨릭종합매스컴 평화방송(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3)은 광주, 대구, 부산, 대전에 지역국을 두고 있다. 라디오가 21살, TV는 16살이 되었다. 라디오 소속 10명(남4, 여6)의 아나운서들이 선교와 교양, 음악방송이 고루 편성된 라디오와 선교 중심 TV에서 활약 중이다.

먼저 라디오 'PBC성 진정성 있는 방송하려면 믿음과 교리 지식 필수' 이고, '음악이 서툰 자리', TV신앙상담 '따뜻한 동행'을 진행하는 지승신 부장. CBS 박명규 아나운서와 부부 사이로 틈틈이 매듭, 자수, 침선을 하며 규방공예가를 꿈꾼다. 향기로운 목소리로 '음악 삶을 만나다' 1부와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을 진행하는 김현주 부장은 중년 남성들의 영원한 로망이다. 조한구 차장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열어주는 '기쁜 소식 밝은 세상' 제작 겸 진행, '교회음악으로의 초대'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제작하고, 평화방송의 카리스마 박성호 차장은 매일 저녁 평화방송의 대표 7080 프로그램 '명동연가'를 제작, 진행한다. 김부궁은 'FM음악공감', 책과 음악의 만남 '북콘서트', TV 'PBC음악회' 진행에 아나운서협회 간사로 늘 바쁘다. '날마다 행복충전'을 진행하며 '열정으로 두드림'을 제작하는 박용환은 제작비용 협찬까지 받아오는 진정한 만능맨. 한낮의 유쾌한 신앙프로그램 '오늘이 축복입니다'를 개그맨 이동우와 함께 진행하는 김수영은 '군중의 시간' 제작 겸 진행에, TV '미디어 비평'도 맡고 있다. 육아 휴직 중인 김빛나는 9월 복귀 예정

기'를 제작하고, 평화방송의 카리스마 박성호 차장은 매일 저녁 평화방송의 대표 7080 프로그램 '명동연가'를 제작, 진행한다.

김부궁은 'FM음악공감', 책과 음악의 만남 '북콘서트', TV 'PBC음악회' 진행에 아나운서협회 간사로 늘 바쁘다. '날마다 행복충전'을 진행하며 '열정으로 두드림'을 제작하는 박용환은 제작비용 협찬까지 받아오는 진정한 만능맨. 한낮의 유쾌한 신앙프로그램 '오늘이 축복입니다'를 개그맨 이동우와 함께 진행하는 김수영은 '군중의 시간' 제작 겸 진행에, TV '미디어 비평'도 맡고 있다. 육아 휴직 중인 김빛나는 9월 복귀 예정

있는 저녁 풍경'과 '초록나라 꿈동산', TV '가톨릭 뉴스'를 맡아 역량을 축적해가는 김원욱, 막내 이소원은 '한낮의 가요 선물'로 점심시간의 나른함을 떨쳐내주는 싱그러움 존재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소명이 있기에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려면 믿음과 교리 지식은 필수. 다기능화 시대, 많은 역할을 해내며 재능과 역량을 펼쳐 보일 기회가 많다는 것은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김부궁 아나운서협회장)

BBS BBS다운 긍정적이며 조화로운 인재

불교방송의 6월은 숨을 고르는 시기이다.

새벽부터 한밤까지 <오늘은 좋은날>, <뮤직펀치>, <음악의 마을>, <음악이 흐르는 풍경>, <영화음악실>, <무명을 밝히고> 등 라디오 일일 프로그램과 뉴스, <마음, 인생을 바꾸다>, <TV 무명을 밝히고>, <다큐 그 절에 가고 싶다> 등 IPTV 프로그램 진행은 변함이 없지만, 5월 1일 개국기념 일부터 연등축제 연중 가장 바쁜 5월 보내고 6월은 숨 고르는 시기



리했다. BBS 아나운서부는 진행부터 제작까지 전전후! 매개편 시 필요할 경우 전원이 제작은 물론 1인 제작·진행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신입 아나운서들도 이와 같은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교방송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공중파 방송의 특질과 아울러 BBS만의 독특함을 가진 긍정적이며 조화로운 인재를 키우는 게 불교방송 아나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방침이다.

연등축제 연중 가장 바쁜 5월 보내고 6월은 숨 고르는 시기

특히 이선희 부장(사진), 이명학, 장수연, 최은경, 정준영, 이렇게 현재 가용 인력 역대 최소인 5명(남1, 여4)으로 IPTV와 라디오의 모든 업무에 특집까지 소화해야 하는 전쟁 같은 시기였지만 그간의 같고닦은 내공으로 잘 마무리

6월에는 울산지역국으로 조현지 신입 아나운서가 교육을 마치고 내려가고, 4년차 이효주 아나운서가 서울본사로 올라오는 등 구성원을 재정비하며, 이어서 본사 신입 정승조 아나운서가 마이크 앞에 서게 된다. 시청자가 불교방송을 만나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그런 방송진행을 목표로 BBS 아나운서부는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장수연 아나운서)

방송가 소식



2011 아나운서실 세미나 개최

5월 27일부터 이틀간 인천 을왕리 골든스카이리조트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해외 방송행사 참관 보고와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의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형 리더십'에 관한 강좌를 들으며 친목을 다졌다.



2011 37기 신입사원 공채 실시

5월 11일부터 37기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2011 KBS 공채가 실시되고 있다. 서류전형과 카메라 테스트에 이어 6월 12일 논술,

작문과 방송학 개론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앞으로 실무능력평가와 인성검사, 심층면접, 최종면접을 거쳐 남자 2명, 여자 3명을 선발, 올 8월 1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백승주 미술 개인전 개최

백승주(29기)가 5월 19일부터 열흘간 팔판동 한벽원 갤러리에서 미술전을 열어 3년간 틈틈이 그려온 유화 30점을 선보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한다.

김경란, 김홍성 해외 방송행사 참관

견문을 넓히고 방송진행능력을 키우고자 아나운서들이 해외 방송행사를 참관했다. 김경란(27기)이 4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시장 MIP TV에서 세계 방송 프로그램의 흐름을 파악했고, 5월에는 김홍성(21기)이 독일 '유로비전송페스티벌'에서 쇼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MBC 아나운서들의 '희망 나눔' 블로그 인기

지난 4월 8일, 김지은, 이주연, 방현주, 최대현, 류수민, 김정근, 나경은 아나운서가 네이버에 '희망 나눔' 블로그(http://blog.naver.com/mbcshare)를 열었다. 아나운서의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 차원의 글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7월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소규모 낭독회도 열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근, 방현주, 류수민, 김지은, 나경은

뉴스데스크 새 여자 앵커 배현진 아나운서

이정민 아나운서의 출산 휴가로 입사 3년차인 배현진 아나운서가 <뉴스데스크>의 새 여성 앵커로 발탁되었다. 배 아나운서는 가족같이 친근한 아나운

서, 신뢰 받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8뉴스' 새 앵커 박선영 대상 아나운서실 합평회

SBS 아나운서실은 아나운서 합평회를 매달 진행한다. 6월 4일에는 4월 개편부터 주중 SBS 8뉴스를 진행하는 입사 4년차 아나운서 박선영이 주인공이었다.

제8회 서울디지털포럼, 아나운서도 함께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11 서울디지털포럼이 "초연결사회-함께하는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다. SBS 아나운서들도 행사에 참여해 기초연설에 박선영, 세션 진행에 정석문, 연사 환영식은 신용철, 이혜승 아나운서가 맡아 멋진 진행 솜씨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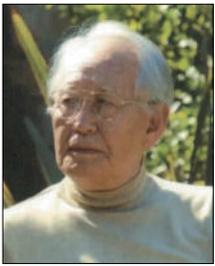


회원 동정

'클래식, 내 마음의 발전소' 5월 출간을 계기로 고국 찾기

위진록 (전 KBS, 재미교포 수필가)

고전음악 교양서 출간을 계기로 6월 초, 2 주일간의 일정으로 고국을 방문했다. 음악세계사에서 펴낸 신간은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긍지와 낭만을 갖고 80 가까이 마이크 앞에 섰던 저자의 직업적 유산이기도 하다. 1947년 입사한 저자와 클래식적 인연은 1950년 말부터 10년간 일본에서 거주하며 직접 제작, 진행했던 유엔군방송(VUNC) 음악 프로그램에서 비롯된다. 당시 매일 밤 KBS 제2방송으로 송출된 '음악의 향연'은 클래식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남양주 모란미술관에서 드로잉 70점 특별초대전 열어

최만린 고문(전 KBS, 조각가)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모란미술관에서 드로잉전을 열었다. 작품 제작을 위한 밑그림 드로잉에서는 작가의 조형미학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다. 최고문은 서울대 미대 조소과 졸업 후 1958년부터 1960년까지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조각가로 전직해 서울대 미대 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아나운서클럽 6대 회장을 지냈다.



한자교육 진흥 법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

이규향 (전 KBS)

6월 7일 국회에서 김성곤(민주당), 김세현(한나라당),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자교육진흥법 공청회에서 "한자도 표기와 발음이 다르다. 우리말을 제대로 발음하려면 한자의 성조를 알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회원은 1961년 KBS 입사, 아나운서 실장을 지냈다.



프로농구연맹 제7대 총재 당선

한선교(전 MBC, 한나라당 의원)

6월 3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총재 경선에서 KBL(한국프로농구연맹) 총재로 당선되었다. 임기는 올 9월에 시작된다. 한 회원은 MBC 아나운서(1984년~1995년)를 거쳐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재선에 성공했다.



소프라노로 가곡과 아리아 발표

김윤희(전 KBS, 송파문화원 부원장)

5월 27일 방배동 백석아트홀에서 열린 송파문화원 아리아반 정기연주회에서 김연준의 가곡 '무곡'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를 발표했다. 사회학 전공자이나 문화원 아리아반에서 10년 넘게 성악을 배우며 전문가의 기량을 닦아왔다고. 1962년 KBS에 입사한 김 회원은 UN인터내셔널유먼스클럽 운영위원·송파여성아카데미 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명

박영선(전 MBC, 민주당 정책위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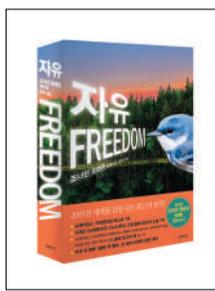
5월 2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되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박 회원은 당내 최초 여성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을 받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81년 KBS 공채 7기, 198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 앵커를 맡다 이듬해 전직해 22년간 기자로 활약했다.



조너선 프랜즈의 소설 '자유' 번역 5월 출간

홍지수(전 KBS)

1987년 KBS 15기 입사, 저녁뉴스 앵커를 하며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다녔던 홍 회원은 미국에 유학 가 콜롬비아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무역,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환경정책을 전공했다. 미국 주정부 관리, 사설 무역투자연구원의 임원에서 번역가로 변신, '자유'(은행나무)는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월든'에 이어 세 번째로 낸 책이다.



월정묵연전 서예 작품 전시

윤영중 (전 KBS, 서예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제19회 월정묵연전(정주상 중심으로 결성된 월정묵연회 회원전)에 한자 행초서체 '시편 23편'을 출품했다. 1954년, KBS에 입사한 윤 회원은 10년 전부터 서예에 매진, 월정묵연회 내 '난정필회' 소속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JC특우회 연수회에서 특강

황우겸 고문 (전 KBS)

5월 19일, 정동진 썬크루즈호텔에서 열린 JC특우회에서 JC의 발자취에 대해 강연했다. JC특우회는 JC(한국청년회의소)에서 활동하다 42세로 탈퇴한 연장자들의 모임이다. 황 고문은 1951년 KBS에 입사, 한국아나운서클럽 2대 회장, JC중앙회 13대 회장, JC특우회 2대 회장을 지냈다.



성균관 의전 담당 전의(典儀) 임명

전영우 고문 (전 KBS, 수원대 명예교수)

4월 1일, 유도회총본부에서 경륜과 인품을 갖춘 공맹사상 전공 국어학자로 인정받아 성균관의 의전을 담당하는 전의로 임명되었다. 1954년 KBS에 입사한 전 고문은 한국아나운서클럽 4대 회장, 한국화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고교 화법 교과서도 집필했다.



자유선진당 대표 임명

변용전 수석부회장(전 MBC)

5월 9일, 이회창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내년 3월까지 '자유선진당'을 이끌게 되었다. 아나운서 출신 정당 대표는 한국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963년 4월 KBS에 입사, '69년 MBC TV 개국요원으로 자리를 옮긴 변 부회장은 MBC예술단 사장을 거쳐 15, 16, 18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다.



건강 되찾고 라디오 진행과 대학 강의

원종배(전 KBS)

건강을 되찾고 KBS 한민족방송과 1라디오로 동시 방송되는 '한민족 하나로' 주말 프로그램 진행과 성균관대 연기예술학부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올 봄 부인(김영빈)이 경영하는 <갤러리시몬>이 경복궁 옆으로 이전, 4층 <카페 빈>(02-720-3032)이 아나운서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원 회원은 1979년 TBC 입사, KBS 통폐합 후 '사랑방송계'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격투기 <KF-1협회> 총재 취임

유정현(전 SBS, 한나라당 국회의원)

4월 28일 우리나라 격투기 <KF-1협회> 총재로 취임, 국내외 선수 양성에 힘쓰겠다고, KF-1 대회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SBS 출신(1993~1999) 유 회원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판교 신도시에 도예 작업실 열어

박성희(전 TBC, 도예가)

올 봄 단국대 대학원 도예과 졸업 후 판교 신도시 백현동주민센터 옆에 <박성희 도자스페이스(010-9192-9463)>를 열었다. 1977년 TBC에 입사한 박 회원은 결혼 후 미국에 살 때 우연히 코넬대 도예과정을 수강했다가 뒤늦게 도자기의 매력에 빠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OBS 토크쇼 MC 등 방송 활동 재개

차인태 부회장(전 MBC)

4월 5일부터 경인TV(OBS)의 토크쇼 '명불허전'(화요일 밤 10시~11시)의 MC를 맡아 방송을 재개했다. 악성림프종 양 진단을 받고 2년간 항암 치료 끝에 완치를 앞둔 차 부회장은 6월 5일 방송부터 MBC '신입사원'의 심사위원을 하는 등 방송활동을 재개했다.



이사급 MBC아카데미 본부장으로 파견

강영은(MBC)

3월부터 자회사인 MBC아카데미의 이사급 본부장으로 파견되어 아카데미를 경영하고 있다. 1985년 MBC 입사, 2006년부터 뉴스, 스포츠 담당 부장을 지냈다. 새 연락처는 (138-2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8(주)MBC 아카데미, 02-2240-3853이다.



Zoom - in 더코칭그룹 대표 정미홍

올바른 가치관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는 제 내 일

KBS 10기(1982~1993) 출신으로 퇴직 후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으로 일하다 홍보대행사를 만들어 10년 넘게 운영해온 정미홍 회원. 지난해부터는 THE-Coaching Group(이하 '더코칭그룹')을 설립해 본격적인 행복 코칭 활동에 나서고 있다. '루푸스'라는 희귀 질환을 이겨내고 2007년부터 전문 코치로 활동해 온 정 대표를 유혜진 객원기자가 만나 보았다.



문: 늘 다방면에서 활약하시는 것 같아요.
답: 작년 4월부터 1년간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tbs 교통방송의 출근길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미홍의 서울 속으로'를 끝냈고요. (주)J&A와 더코칭그룹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며 요즘 코칭과 외부강연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SUNDAY'에 코칭 칼럼도 기고하고 있지요.

문: (주)더코칭 그룹은 어떤 곳 인가요?
답: 개인 또는 조직이 의식 혁신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코칭, 기업 코칭, 청소년 품성 코치 육성, 전문 코치 교육, 교육 콘텐츠 및 출판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양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올 봄 학기부터 '품성개발 코칭' 및 '코칭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코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행복을 만드는 감정 코칭'이란 무료 강좌도 열고 있

습니다.
문: 프로 코치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지금은 건강해졌지만, 15년간 전신성 류마티스 질환인 루푸스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1997년에 환우 모임을 만들어 회장으로서 의문비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지금 (사)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약칭 '루이사')회원이 5000명이 넘습니다. 사실 저는 환자들의 의식을 바꾸고 싶었어요. '병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란 확신 때문이죠. 방법을 찾아다니고 코칭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고 전문교육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송, 홍보, 코칭 모두 의사소통 전문가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문: 아나운서 경력이 프로코치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미인가요?
답: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제 삶에 가치를 더해줬습

니다. 홍보 일을 할 때도 전(前) KBS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이 저를 따라다녔는데요. 사람들이 이 직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처럼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관계를 맺는데, 뭔가 친근하고 익숙한 인상이면 다가가기 훨씬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죠.

문: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답: 우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이었으면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건강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히말라야에도 다녀왔는데 세계 각지의 산을 오르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공부도 더 해야 하고, 또 틈틈이 그려온 그림, 작년부터 시작한 발레 등 취미활동에도 신경 쓰고 싶네요. 앞으로도 목표를 갖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역할 모델은 우리 선배님들이에요'



이은정
 1990년 tbs 공채 1기 입사
 2000년 아나운서협회장상
 2003년 서울시장상 수상
 2007년 아나운서부장
 2011년 1월 ~현재 심의실장

제 책상에는 아나운서 선배님의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가 될 거라는 어느 선배님의 사진이죠. 아나운서로 살며 강산이 네 번 이상 변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빛나는 자리에 오를 수도 있건만, 당신은 그저 아나운서로 평생 불리고 싶으신 겁니다.

상대와 대화를 할 때는 온몸과 마음을 다 열고 집중해야만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이야기

기를 나눌 수 있다고 가르치시며, 언제 어느 자리에 서나 자신의 아나운서 생활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선배님. 얼굴에는 평생 아나운서로서 살아오신 자부심과 겸손함이 묻어나오고, 나이는 숫자라며 씩씩한 에너지가 뿜어 나오는 선배님. 선배님의 말씀과 모습이 하나하나 보석처

럼 굴러서 저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제게 있어 불려도 불려도 그렇고 가슴 뭉클한 단어는 아나운서입니다. 삶이 고달플 때, 외롭고 힘들 때도 아나운서였기에 견디었고, 아나운서였기에 이겨냈습니다. 아나운서는 나의 존재 의미고 삶의 넘치는 에너지며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배님처럼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에 글을 쓰며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삶의 에너지를 준, 자부심을 안겨준 아나운서의 의미는, 여기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요.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이 후배가 힘을 내고 곳곳까지 이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고요. 제가 힘이 빠질 때,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 여기 아나운서클럽에서 선배님들을 보며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선배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항상 빛나는 모습으로 계주세요. 방송사가 다르고 시대가 달랐더라도 우리는 아나운서이므로 함께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배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작가 이정부
 열정, 갈등 / 캔버스에 아크릴
 1968년~1994년 KBS 아나운서, 뉴스 담당 부장, 퀴즈, 뉴스, 스포츠중계
 1999년~2005년 SBS골프 아나운서실 국장, 방송위원, 골프 전문 캐스터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 서양화가, 조각가
 작품활동 - 1967년 국전, 회화그룹 '다양성' 창립멤버 작품전 3회(93,95,98)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초대 대변인 역임

알림

〈기부금 납부자〉 이선미(50만 원)
 〈연회비 납부자〉 (3월 15일~6월 10일)
 박선영 송재원 윤성원 이정부 정영환 임택근 박영주 민병연 김인숙 최만린 황우겸 권혁화 김윤희 문복순 전용덕 최계환 강영은 윤영중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축하합니다

이지현 (전 MBC) 아들 정진호 군 혼사 : 7월 9일(토) 정오,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정경래 (전 KBS) 장녀 난지 양 혼사 : 6월 26일(일) 오후 1시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
 이인숙 (전 MBC) 장녀 방현지 양 혼사 : 6월 5일(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맹관영 (전 KBS) 막내 나리 양 혼사 : 5월 28일(토) 경원대 비전타워 5층 가천웨딩홀
 최혜림 (SBS) 5월 15일, 대학 선배인 회사원 남성일 씨와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서 혼인
 이하정 (MBC) 3월 25일, 배우 정준호 씨와 세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이계행 (전 KBS) 부친상 이성수 (전 KBS,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병부상 - 5월 20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성세정 (KBS) 부친상 - 3월 21일 부천 석왕사



A-House (Night)



Golf Course



Golf Course



Pool



Racket Club



Racket Club



The Restaurant



Mcqueen's Cafe



Club Activity

THE ANANTI

CLUB, SEOUL

THE ORIGINAL COUNTRY CLUB

컨트리 클럽은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도시 사람을 위하여 교외에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을 갖춘 클럽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컨트리클럽'은 골프장과 동의어처럼 쓰여왔습니다. 아난티클럽, 서울은 한국 최초의 오리지널 '컨트리클럽'으로 최고의 골프코스과 클럽 고유의 문화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Golf Course 아난티클럽, 서울에서의 라운딩은 스포츠라기 보다는 마치 숲속으로 떠나는 여행과 같다. 60만평의 너른 대지에 27홀을 조성하여 코스 주변에 숲이 있다기 보다는 숲속에 코스가 있는 듯하며, 홀 하나하나가 숲에 의해 독립성을 갖고 그 자체로 완성된 프라이버시를 겸비한 이러한 코스는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

Pool 아이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방문객들을 위한 장소, 선베드에선 일광욕을 하며 독서를 즐길 수도 있고, 하늘과 잣나무 숲을 감상하며 런치를 즐길 수도 있다.

Racket Club 총 3면으로 최대 8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테니스 코트인 라켓클럽에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코치의 프라이빗 레슨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서적이 비치된 쾌적한 실내 휴식 공간도 마련 되어 있다.

Club Activity 아난티클럽, 서울은 개썰매, 스노우트레킹 등 다양한 계절별 액티비티, 풍성한 공연 및 이벤트 그리고 주니어클럽까지 한국 최초의 오리지널 컨트리클럽으로써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